**야쿠시마 섬의 동물**

야쿠시마 섬은 면적이 불과 500km2이지만 동물 다양성의 보고입니다. 많은 종이 이 섬에서만 자생하며, 이 섬의 지질 및 서식 환경의 영향으로 포유류는 본토의 포유류보다 작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포유류

야쿠시마원숭이(*Macaca fuscata yakui*)와 야쿠사슴(*Cervus nippon yakushimae*) 등 17종 4아종의 포유류가 삼림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곰이나 멧돼지, 여우가 있는 일본의 다른 지역과 달리 이 원숭이와 사슴에게는 대형 포유류인 포식자가 없습니다. 이는 야쿠시마 섬의 원숭이와 사슴의 몸집이 작아진 한 원인일지도 모릅니다. 이 섬이 아시아 대륙과 일본 본토에서 분리되면서 먹이가 부족해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결과 한정된 자원으로 개체 수를 늘려야 했기 때문에 동물이 작아졌습니다. 그러나 야쿠시마 섬의 비교적 영양가가 높은 먹이도 또한 이 사슴의 높은 신진대사율과 제한된 성장에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릅니다.

야쿠시마원숭이는 어두운 회색이며 손발이 거무스름합니다. 본토의 일본원숭이에 비해 털이 두껍기 때문에 해발이 높은 곳에서도 겨울에 온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원숭이는 섬의 나무들에 살고 있지만, 주로 연안부터 해발 약 800m인 조엽수림까지의 지역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마을이나 연안 지역에서는 아코나 가주마루(대만고무나무)의 열매를, 산림에서는 모밀잣밤나무와 붉가시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야쿠사슴은 해발 약 1200m의 상록활엽수림과 삼나무 숲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색은 갈색이며 나무껍질이나 새싹, 나무 열매 등을 먹습니다.

이 원숭이와 사슴은 세이부린도(서부임도)를 따라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지역의 동물들은 인간에게 익숙해졌습니다. 방문자들은 동물들이 먹이를 찾는 자연적인 주기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절대 먹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조류

야쿠시마 섬에서 확인된 많은 새들 가운데에는 이 섬에서만 자생하는 2종류의 아종이 있는데, 이들은 어치(*Garrulus glandarius orill*)와 곤줄박이(*Parus varius yakushimensis*)입니다. 의외로 깊은 삼림에서는 들새 관찰이 어려워 대부분의 종은 산림이 아니라 해발이 낮은 장소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봄과 가을에는 많은 철새가 야쿠시마 섬에 들르는데 그중에는 왕새매(*Butastur indicus*)와 후투티(*Upupa epops*) 등의 희귀한 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새도 일본 본토에서 날아오지만 야쿠시마 섬에는 둥지를 짓지 않습니다.

들새 관찰을 하기에 가장 좋은 곳 중 하나는 시라타니운스이쿄 협곡의 사쓰키 구름다리 건너편에 있는 원시림을 지나는 산책로 길가입니다. 욧코 계곡에서도 큰 화강암 바위들이나 에메랄드 그린의 연못 등이 만들어내는 조용하고 한가로운 풍경 속에서 들새 관찰을 즐길 수 있습니다.

곤충

야쿠시마 섬에서는 3,000종이 넘는 곤충이 발견되고 있는데, 그중 대부분은 규슈 본토에도 서식하고 있습니다. 야쿠시마 섬이 북한계선인 곤충도 몇 종류가 있으며, 산에서 낮은 곳이나 연안 지역에서는 많은 남방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섬에는 많은 하늘소를 비롯해 희귀한 곤충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나비나 잠자리도 남서풍이나 태풍에 쫓겼을 때는 가까이는 도카라 열도나 아마미 제도에서부터, 멀리는 아득히 먼 타이완이나 필리핀, 또는 중국 본토에서 일시적으로 야쿠시마 섬으로 흘러옵니다. 야쿠시마 섬에서 자생하는 희귀한 남방녹색부전나비(*Thermozephyrus ataxus*)라는 나비는 고도 600~1,300m인 야쿠스기 랜드, 고스기다니, 그리고 하나노에고 등지에서 7월과 8월에만 볼 수 있습니다. 시라타니운스이쿄 협곡은 곤충을 관찰하기에 전반적으로 적합한 장소인데, 오코노타키 폭포는 잠자리를 관찰하기에 좋은 곳으로 인기가 있습니다.